



Web Contents



2024년 04월 27일 14시 15분

유달동 주민자치위, 신안군 자은면 주민자치위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

2022.11.29 조회수 270

- 상생하며 미래 서남권 통합 밑거름 약속

유달동 주민자치위원회(위원장 정형운)가 지난 24일 신안군 자은면 주민자치위원회(위원장 김준섭)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.

자은면사무소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유달동과 자은면 주민자치위원, 유관단체장, 주민 등 약 4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.

양 주민자치위원회는 목포와 신안은 본래 한뿌리라는 공동체 의식 아래 농번기 일손 돕기, 특산물 직거래, 각종 행사 초청 등 활발한 교류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맺었으며, 협약식 후에는 자은면 구영경로당을 방문해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.

정형운 유달동 주민자치위원장은 “목포와 신안이 상생·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자은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. 지역 주민의 화합이 서남권 통합의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”고 말했다.

김동호 유달동장은 “천사대교 개통 후 인기 관광지로 떠오른 자은면과 목포 관광1번지인 유달동이 자매결연을 맺게 돼 뜻깊다. 자매결연을 계기로 활발히 교류해 끈끈한 사이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”고 밝혔다.

유달동 주무관 강나을(270-4725)



첨부파일

전체(Zip)다운로드

3.유달동 주민자치위, 신안군 자은면 주민자치위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.jpg (113 hit/455.9 KB) ↓

미리보기

이전글 목포시, '출의 항기 따라간 그곳에는' 공연	다음글 상동·죽교동·용당1동, 취약계층과 온정 나누는 11...
--	---

COPYRIGHT © MOKPO-SI. ALL RIGHT RESERVED.

MokPo - Si
Web Contents

